

재현과 비재현 사이

ABSTRACTION展 9. 10~11. 3 제이슨함갤러리

〈ABSTRACTION〉은 제이슨함갤러리의 세 번째 그룹전이다. 그동안 갤러리가 진행한 어느 그룹전과 차별점이 있다면 표제를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작가 이름을 내건 전시와 달리 갤러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추상의 계보 그리기

재현을 둘러싼 많은 담론이 있고 예술적 시도들이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재현과 비재현이 대립 항의 이분법을 넘어 재현적 재현, 재현적 비재현, 비재현적 비재현, 비재현적 재현 등으로 교섭과 혼종을 갱신하는 상황에서 재현과 비재현의 키워드가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다만 이들을 대치하기보다 상호 충돌과 긴장 관계에서 만들어진 교섭 과정을 살피고 이후의 비/재현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재현 체제에 반기를 들고 추상예술에서 시각성을 추출한 모더니즘 예술의 시도는, 예술가가 시각성이 배제된 물질과 신체성에 눈을 돌리고 사회·정치적 맥락에 재현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개입시키며 추상의 세계관을 통과한 표현과 재현에 길을 내는가 하면, 다시 추상성의 실천을 갱신하고 금융 상품 체제하에 좀비 포멀리즘의 양식을 발현기도 했다. 모더니스트 페인팅이 기치

삼은 비재현의 시각적 형식성은 탈각되기보다 새로운 형상을 구축하는 장치이자 방식의 기초가 되고 심상의 지지체이자 형식적 필터로 작동해온 셈이다. 전시는 이항 대립 사이에, 또는 그 너머 작가를 둘러싼 지리와 지역성, 인종, 젠더, 사회·심리적 환경 등의 요소를 형식과 내용의 바탕으로 삼으며 제작된 작품을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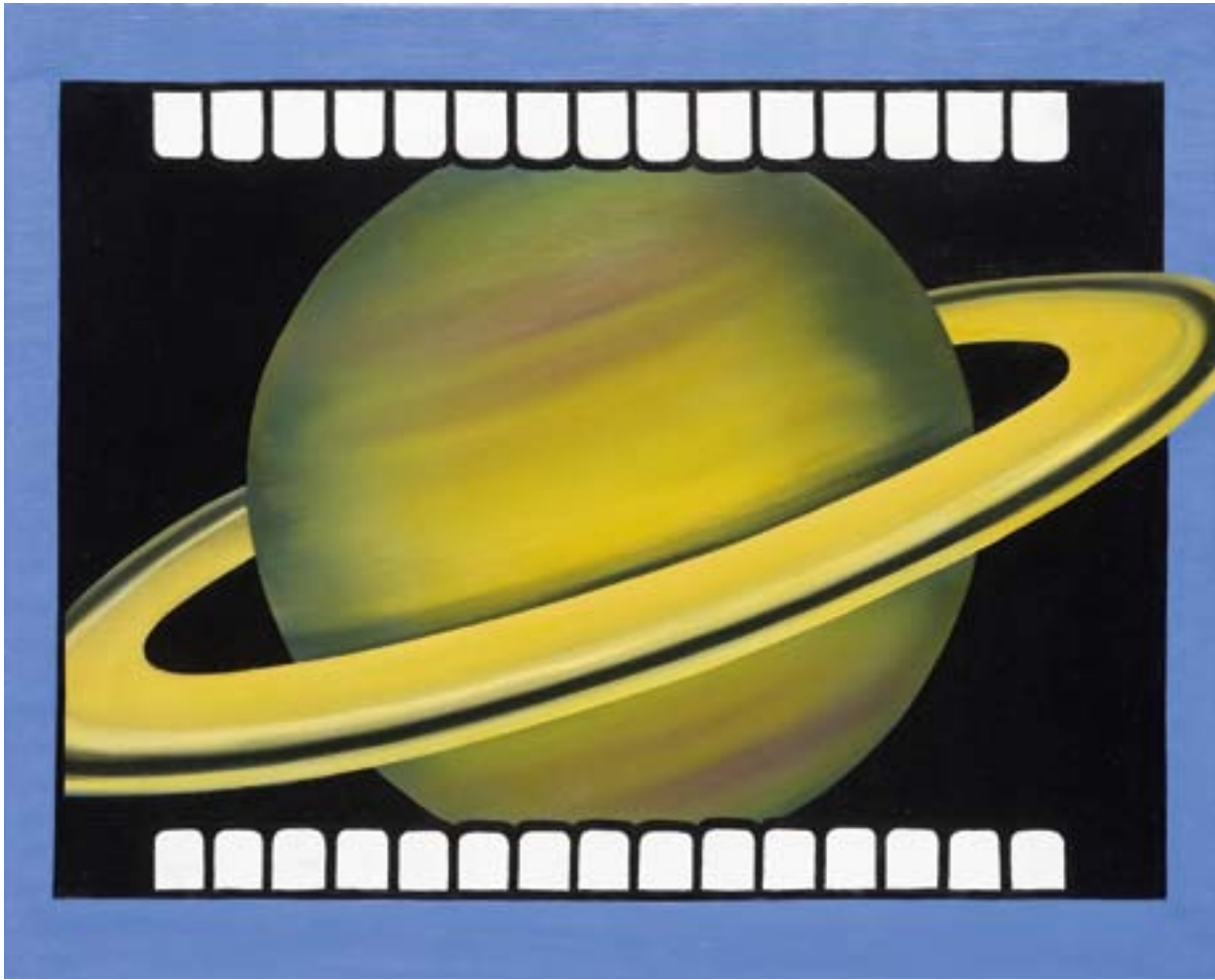
전시는 갤러리가 수집하는 작업의 경향을 읽고 형식과 내용상의 유비적 요소에 따라 서로 연결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시장 입구에는 야요이 쿠사마, 조지 콘도, 에밀리 메이 스미스의 작업을 배치했다. 출품작 중에서는 가장 구상적 요소가 많은 정물과 초상화이지만, 정물을 점점이 세포처럼 쪼개고(야요이 쿠사마 〈Fruits〉) 성모 마리아에 입체주의 요소를 가미하며 얼굴에 변형을 가한 작업(조지 콘도 〈The Virgin Mary〉)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구상과 추상의 구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정물을 쪼갬 파편마다 찍힌 점과 성모 마리아의 과도한 이빨은 에밀리 메이 스미스의 〈Devouring Saturn〉 화면 위아래를 두른 이빨에 연결된다. 프란시스 고야의 〈Saturn Devouring His Son〉에 모티프를 얻은 이빨은 단지 소재로 배치될 뿐 아니라 씹어 받기는 행위로 추상화된다. 재현 체제를 씹으며 초현실적 시각성을 추출하고, 추상에서 구상을 다시금 여과한 과정은 반복적 저작 활동, 미술사적 형식성을 거둬 씹어내며 형식을 창안하는 동시에 교환 가능한 자본주의 상품으로 연역해내는 과정을 그린다.

이어지는 전시실에는 메리 웨더포드의 〈Switching Yard〉, 우고 론디노네의 〈elfterjulizweitausend undfünfzehn〉을 마주하도록 했다. 이들은 회화의 지지체로서 캔버스와 평면의 화면 자체를 오브제로 다루는 미니멀리즘에 연장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고 론디노네는 지역의 풍광을 바탕으로 오브제를 만든다. 하늘의 색깔을 구름의 기호로 축약하고 가공한 오브제는 전시장에 풍경의 효과를 만들며 맞은편 메리 웨더포드의 〈Switching Yard〉와 시각적 균형을 맞춘다. 굵고 역동적인 필치로 화면을 가로지르는 〈Switching Yard〉의 가느다란 네온은 캔버스로 수렴하는 회화의 닫힌 프레임을 관통하는 동시에 캔버스를 배경 삼아 화면 바깥의 공간으로 빛을 방사한다. 두 작업을 마주해놓은 배치는 작품을 프레임 너머 장소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한 기획 의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재현과 비재현을 교섭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전시는 2층에 이르러 다양한 형식적 시도로 연결된다. 린 마이애스의 〈무제〉는 점과 선을 반복해 찍어 시각적 착시를 만든다. 점과 선은 기록의 시간성을, 반복의 몸짓을 전제하며, 점과 선이 상이하게 포개어진 겹겹의

린 마이애스 〈무제〉 패널에 스프레이 페인트, 아크릴릭 과슈, 아크릴릭 잉크 104.1×83.8cm 2020_ 〈ABSTRAC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Non-representation〉전은 작가 10명의 그룹전이다. 현대회화의 '추상'을 주제로 삼았다.





텍스처는 고정된 공간과 공간의 규범성에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 점과 선이 자아내는 면의 이미지는 너울대는 유동적인 얇은 막의 표면으로 표상된다. 반면 바로 옆에 마주한 야요이 쿠사마의 <INFINITY-DOTS [NFE]>는 착시보다는 신경증적으로 화면 가득 점을 찍는 수행의 결과물로서 평면에 끝없이 펼쳐진 점의 집적을 강조한다. 캔버스와 공간에 흔적을 남기는 수행은 강박적일 만큼 특정 행위의 반복을 극대화하는 신경증적 수행을 표상한다. 회화적 수행의 입계는, 앞서 조지 콘도의 초상에서 뭉개지고 해체된 형상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에도 상응한다.

점점이 내는 피막의 효과는 올리버 암스의 <Midwife>의 거친 색면에 대비된다. 물감층을 쌓아 산업용 벨트 샌드로 갈아내어 납작해진 화면에는 복잡하게 적층된 물감이 소용돌이친다. 캔버스에 물감을 입혀 볼륨을 만들어 갈아내고 다시 스트로크를 가하는 작업 공정은 회화보다는 조소와 조조에 가깝다. 공업용

기기로 작업하는 공정은 산업 기기에 손의 감각을 조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순수미술에 적층의 반복과 절삭 등의 가공을 교섭하는 시도이다. 화면은 몸의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행위의 단층처럼 보이는데, 이질적인 감각과 장치가 개입한 감각적 합성물의 흔적이다. 여기에 영국 작가 안토리 곰리의 <SMALL PUSH III>가 층적의 다른 판본을 제시하며 조용한다. 전시에서 유일하게 조각인 그의 작업은 세계로부터 관조의 태도를 취하고 그 태도를 양식화하면서 심연의 문을 가리키고 두드리는 사변적 오브제로 의미 부여되었지만, 큐브를 쌓아 올린 형상은 앞서 다른 작가들이 적층하고 반복해온 수행을 바탕으로 한 해석에도 문을 열어준다.

크리스 오펔리의 <Dancers in Blue>와 데릭 포드저의 <Couplet 30>은 인종적, 지역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들은 흑인 재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부정하거나 벗어나기보다 현대미술의 표현과 질감을 접목하면서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위상을 형식적으로

야요이 쿠사마 <Fruits>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5.5cm 1984

왼쪽 페이지
에밀리 메이 스미스
<Devouring Saturn> 리넨에
유채 40.6×50.8cm 2018_
전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분됐다. 전통적인 추상회화의
담론에서 벗어나 추상의 발전
과정과 오늘날 그 개념이 갖는
복합성을 탐구한다.



구현한다. 형태를 겨우 알아봄 직한 어두운 색감을 가죽 프레임으로 두른 크리스 오펔리의 작업은 콜라주와 모자이크로 흑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릭 포드저의 작업에 연결된다. 카드보드지와 신문지 등을 찢어 구성한 형상은 구상을 파괴하는 추상인 동시에 백인 남성의 손을 거친 모더니즘 미술을 전유하고 탈구하면서 모더니즘 미술을 재구성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젊은 갤러리의 야심 찬 기획전

제이슨함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출품작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스토리텔링 라인을 제시해줄 개연성의 지표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주관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묶는 독법은 작품들이 해당 속성에 매칭되는 것 너머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전시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를 세분화하거나 배치의 의도를 알렸다면

하는 점이 자못 아쉽다. 관객이 전시를 자유롭게 읽도록 허용하는 무언의 신호로 읽어볼 수 있겠지만.

제이슨함갤러리는 구력이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전시하면서 전략적 선별과 배치를 수행한다. 야요이 쿠사마, yBa로 꼽히는 안토리 곰리나 크리스 오펔리 등의 작업을 함께 배치하고, 조지 콘도와 에밀리 메이 스미스의 작업을 놓으면서 작품의 미술사적, 지리학적, 형식적 계보를 새로이 그린다. 또한 국내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올리버 암스와 린 마이어의 작업까지 붙이면서 갤러리가 표방하는 감각적 표현의 감식안 외에도 미술사적 연결성을 보여준다. 재현과 비재현을 넘어 제3세계 출신, 여성, 유색인 등의 맥락이 교차하며 구현된 형상을 전시하는 시도는 동시대 맥락에서 당대 미술의 형상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는 이후의 과제를 남겨두는바, 그것은 젊은 갤러리에게 갖는 기대이기도 하다.

/ 남 용